

낙농분야 Y2K문제 해결 방안

이 윤 창
본회 조직지도부

● Y2K(Year 2 Kilo), 컴퓨터 2000년 문제란?

"Y"는 연도(Year)의 첫글자이고 마지막 "K"는 1000을 의미하는 Kilo에서 유래된 것이다.

또한 Y2K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밀레니엄 버그는 1천년을 뜻하는 밀레니엄(MILLENNIUM)과 컴퓨터의 오류를 뜻하는 것으로, 컴퓨터의 연도표기법이 2자리로 되어 있거나 컴퓨터가 2000년을 윤년으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2월 29일을 처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제문제를 말한다.

1998년을 "98"로 표기하고 2000년을 "00"으로 표기하는 경우 이들 연도를 포함한 데이터를 비교, 배열 또는 처리하는 때에 논리적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소의 생태관리프로그램에서 4월에 수정한 소의 향후 분만일은 2000년 1월이나 연도를 2자리로 처리한 경우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하여 시스템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컴퓨터 시스템 개발초기에 하드디스크와 메모리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연도표기를 4자리 중에서 마지막 두자리만 인식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었다.

● Y2K는 우리 낙농기와의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Y2K문제에 대하여 우리 낙농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Y2K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별로 없을 정도로 심지어 일각에서는 Y2K야말로 세기말 대재앙이 아니겠냐고 얘기할 정도다.

이러한 Y2K문제에 대한 인식은 Y2K문제해결의 첫 걸음으로 낙농가 자신의 문제 해결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많은 목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보유하고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이들 설비들이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피해당사자는 낙농가 자신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여야 한다.

당장 눈앞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낙농가 개개인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목장과 개체들의 수많은 데이터와 여러가지 노하우 등이 일순간에 이용될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Y2K에 대한 문제인식이야말로 Y2K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인 낙농가 자신의 Y2K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점검 없이는, 목장에 설치된 자동화 설비들의 Y2K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Y2K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는 대체로 어떤 것인가

○ 자동사료급이기 등의 장애 발생

자동사료급이기에는 대부분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Y2K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갑자기 사료가 배출되지 않아 가축들이 굶을 수 있고, 추위(또는 더위)로 가축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오토텐덤착유기의 장애 발생

오토텐덤착유기 역시 날짜와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Y2K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기기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사양관리프로그램(S/W) 장애 발생

젖소의 자동유량측정, 임신여부, 분만예정일의 점검과 계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체관리가 불가능해지고 그동안 축적한 각종 데이터를 못쓰게 될 수도 있다.

○ 기타 자동화 설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사료급

여, 급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방류될 수 있으며 무리한 작동으로 고가의 자동화 설비가 손상되어 큰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 PC에 설치된 낙농관련프로그램등 각종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 우리 목장의 자동화 설비들의 Y2K문제 여부를 제조 판매 업체에 진단과 해결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우리 목장에 설치된 각종 자동화 설비와 프로그램 등은 Y2K로부터 안전하가를 점검해 보자.

비정보분야인 축산자동화 설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은 Y2K문제에 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해당 개별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장비 등이 필요하고 시험운영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자동화 설비를 제조 판매한 업체에 문의하여 적극적인 A/S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Y2K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급자인 제조 판매업체와 사용자인 낙농가간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요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해석은 계약서상에 유지보수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는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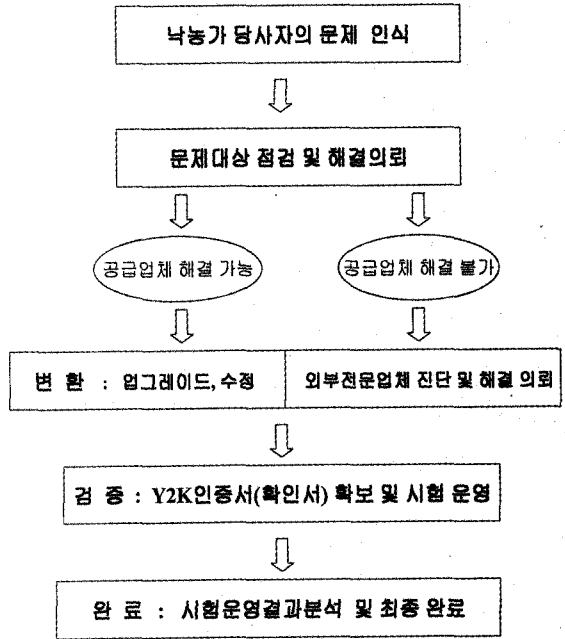
소송의 천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벌써부터 Y2K문제에 대하여 수많은 소송으로 소송대행업체 등이 Y2K 특수를 누리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의 발생으로, 설사 소송에서 승소한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소송비용을 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업체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계속 주장할 경우, 해당업체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와 대화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법률적인 대응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Y2K문제 해결 추진체계도 ◆



▲ Y2K문제와 관련이 없거나 해결되었다는 제조 공급업체의 답변이 있을 경우 업체로부터 Y2K문제에결 확인서나 확인공문을 받아 두자

Y2K와 관련이 없거나 Y2K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업체의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는 Y2K문제해결 확인서나 확인공문을 요구하여 반드시 받도록 한다.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 유무를 가려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문을 받았다고 100%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낙농가 스스로가 업체가 수행한 시험운영방법을 입수하여 직접 자체 테스트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축산분야 Y2K문제 상담 창구

- ◆ Y2K대책본부 : 0343-420-3593
- ◆ 한국낙농육우협회 : 02-588-7055/6
- ◆ 농림부 : 02-500-2632
- ◆ 농림수산정보센터 : 02-589-2047
- ◆ 축 협 : 02-2224-8472
- ◆ 농림부 Y2K 홈페이지 : <http://www.maf.go.kr>